

 POSRI 보고서

핵협상 타결로 빛장 풀리는 이란시장 5대 공략포인트

임정성 수석연구원, 글로벌연구센터 (jsimm@posri.re.kr)

서상현 수석연구원, 글로벌연구센터 (unisa21@posri.re.kr)

[목 차]

1. 극적인 이란 핵협상 타결
2. '신이 축복한 나라', 이란
3. 이란시장 5대 공략 포인트
4. 기업에 주는 시사점

Executive Summary

- 금년 4월 2일, 1년 6개월간 지속된 이란과 P5+1간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
 - 정치적 합의안 골자는 핵개발 활동 중단 및 국제사회의 제재 점진적 해제
 - 6월말까지 세부적·기술적 합의안 도출 후 최종타결 되면 UN제재를 해제하고, 이후 미국과 EU의 개별적 제재도 해제 예정
- 이란은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잊혀졌지만, 자원, 인구, 기술, 자본 등 4대 성장잠재력 요소를 모두 보유한 ‘신이 축복한 나라’
 - 원유 세계 4위, 가스 세계 2위 매장량 보유, 8천만 명의 거대인구 보유
 - 그러나 석유 고갈, 저유가 시대, 높은 청년 실업률, 고물가 등 다른 중동 산유국들과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여 경제개방이 불가피
- 공략포인트① : 건설 EPC 시장에서 E&P와 파이낸싱에 집중하라
 - 로컬 건설사의 역량이 높기 때문에 고급 공종의 엔지니어링(E)과 구매(P)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살리고, 파이낸싱과 패키지로 수주하여 경쟁력 제고
- 공략포인트② : 제조업에서는 품질보다 ‘가격’에 맞춰야
 - 중국기업보다는 품질이나 서비스가 좋고, 선진국 기업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‘한국적 경쟁력’을 살려 공략할 필요(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 양호)
- 공략포인트③ : 국영기업 및 준국영기업과 협력하라
 - 사업안정성과 파이낸싱 역량이 양호한 국영기업, 준국영 기업, 혁명수비대 산하 유력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
 - 인맥 통한 사업기회 발굴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이 바람직
- 공략포인트④ : 비즈니스 리스크를 경계하라
 - 경쟁 리스크, 정책·제도 및 관행 리스크, 정치 리스크 등을 인지하고 대응
 - 다국적기업들의 이란시장 진출 확대로 조만간 ‘Red Ocean化’될 가능성 우려
- 공략포인트⑤ : 정치·문화적으로 Care하라
 - ‘아래로부터의 혁명’을 거친 독특한 정치체제(이슬람 신정국가 + 민주주의) 이해 필요
 - 이란은 페르시아 민족 정체성이 강하고 문화 자긍심도 높음(아랍국가 아님)
- 과거 수 차례 유망 신흥시장이 개방될 때마다 반복되었던 ‘묻지마식’ 진출을 지양하고, 사업기회 추구와 함께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
 - 6월말 최종 타결되어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철저한 진출 준비가 필요
 - 국제 정세·유가·자본 흐름에서 이란의 Game Changer 역할 부상도 주목

1. 극적인 이란 핵협상 타결

□ 금년 4월 2일 이란과 P5+1간에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

- 양측은 1차 협상 마감시한인 3월 31일을 넘겨 이틀간 연장된 마라톤 협상 끝에 ‘포괄적 공동행동계획(JCPOA)’을 마련하는데 최종 합의
 - 2013년 11월 잠정타결 이후 1년 6개월만에 그랜드 디자인을 도출했으며, 앞으로 6월말까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협상 예정
 - P5+1은 UN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(미, 영, 불, 러, 중)과 독일이 포함
- 이번 잠정 합의안의 골자는 이란은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

<이란 핵협상 타결 주요 내용>

▶ 이란 핵 시설 및 핵 물질 관련 타결 주요 내용

- 원심분리기 수 감축: 현재 19,000개 → 6,104개
- 저농축 우라늄(LEU) 재고 감축: 현재 1만kg → 300kg
- 3.67% 이상 농축한 LEU 생산 금지
- 15년간 우라늄 농축 목적의 신규시설 건설 금지
- 여분의 모든 원심분리기와 핵 농축시설은 IAEA에서 보관
- 아라크(Arak) 중수로의 원자로 폐기 및 국외 반출

▶ 제재 해제 관련 타결 주요 내용

- 제재 점진적 해제: 이란의 핵관련 핵심조치 이행 검증(IAEA) 시까지 제재 유지
- 6월 30일 최종협상 마무리 후 UN 제재 해제 → 미국과 EU 제재는 추후 해제

▶ IAEA(국제원자력기구) 관련 타결 주요 내용

- 나탄즈와 포르도를 포함한 모든 핵 시설사찰 및 25년간 우라늄 광산 정기사찰

자료 : 언론보도 종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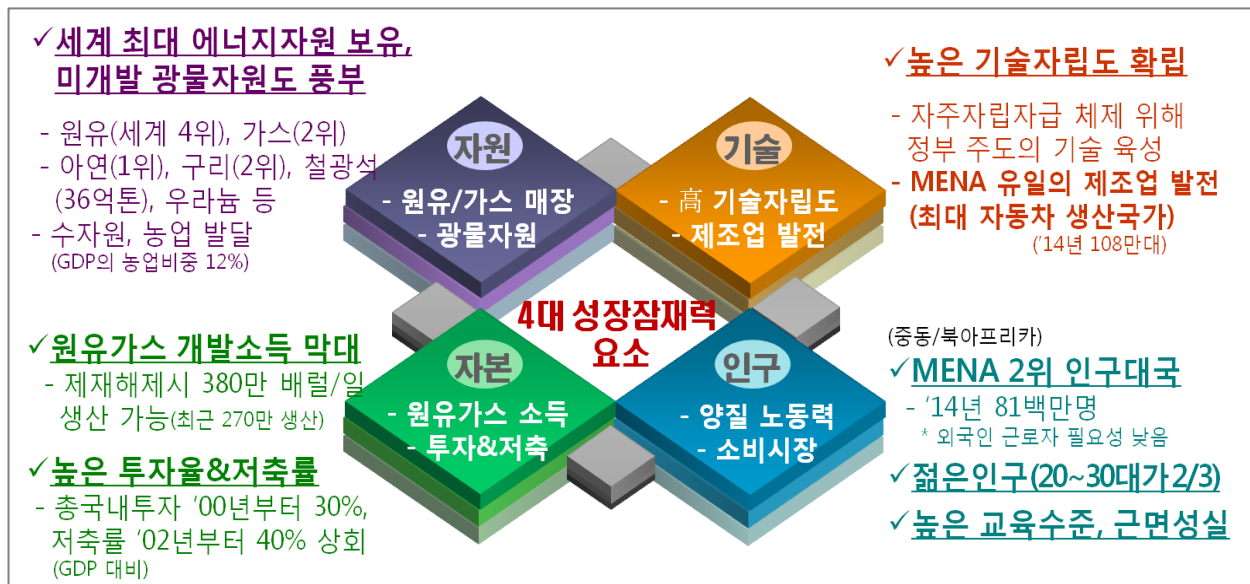
2. ‘신이 축복한 나라’, 이란

□ 2006년 UN의 다자제재 채택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잊혀졌지만, 이란은 자원, 인구, 기술, 자본 등 4대 성장잠재력 요소를 모두 보유

- 원유(매장량 세계 4위)와 가스(세계 2위) 외에 아연, 구리, 철광석, 우라늄 등 68종의 광물을 보유하여 성장 위한 재원 풍부
 - 원유가스 및 광물자원의 본격 개발 시 재정수입 크게 증가 가능

- 석유생산을 현재 270만 배럴/일에서 수년 내 380만 배럴까지 증산 가능
- 동결된 약 1,000억 달러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시 유동성 크게 개선
- 8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규모는 GCC 산유국과 차별화하는 최대 장점
 - 인구의 60%가 소비성향이 높은 30대 이하('80년대 이라크와 전쟁후 베이비붐 세대)이며, 여성의 노동 참여율도 높아 외국인 고용 필요성이 낮음
 - 국민의 2/3가 고등교육을 받았고, 과학기술 분야(기초과학, 우주과학, 의료 등)도 우수
- 지난 30여 년간 자급자립 위해 전 산업분야에 대한 육성 노력으로 중동에서 유일하게 제조업이 발전(GDP 비중 15.1%)

<이란의 4대 성장잠재력 요소>



자료: 저자 작성

□ 그러나 이란도 다른 중동 산유국가와 비슷한 문제들에 직면한 상태

- 석유의존도가 재정수입의 약 50%, 수출의 약 80%를 차지해 석유 고갈에 대비한 산업 다각화 정책과 민간부문 확대가 필요
 - 1990년대부터 실시한 산업 다각화 정책과 민영화 추진 실효성이 낮음
- 최근 급등한 청년 실업률은 '이슬람공화국' 정권의 위협 요소로 대두
 - 공식 실업률 : 전체 13%, 청년 20%, 여성 24%, 젊은 여성 43%
 - 강화된 경제제재 하에서 2012년 -6.6%, 2013년 -1.9%로 성장이 뒷걸음친 반면 소비자물가가 35~40%(2013년)까지 치솟아 정치적 불안정성이 고조
- 이런 경제상황에서 2013년 6월 국민들이 서방과 핵협상 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중도파의 로하니를 지지하여 정권이 교체

□ 35년 만에 본격적으로 빛장이 풀리는 이란 시장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적절한 공략 포인트 모색 필요

○ 이란 시장이 개방되면 소비재와 자본재 시장은 물론 건설, 유통, 금융, 관광 등 서비스 시장까지 사업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
- 잠정타결 이후 각국 무역 사절단이 잇따라 이란을 방문했으며, 최종타결이 임박해지자 서구 투자자와 금융 기업들이 대거 테헤란으로 입성

○ 우리기업들은 신흥시장 ‘진출 붐’에 휩쓸려 손실을 초래했던 출혈경쟁 경험을 상기하고 이란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차분한 준비가 필요

- 이란은 2010년까지만 해도 중동 4대 메이저 건설수주 시장이었음

- 한국의 대이란 수출도 2012년 64.6억 달러의 최고치 기록 후 2014년에는 41.6억 달러로 급감

3. 이란시장 5대 공략 포인트

□ 공략포인트① : 건설 EPC 시장에서 E&P와 파이낸싱에 집중하라

○ 이란 건설시장이 개방되면 에너지, 발전, 수송 등 인프라, 산업 플랜트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수주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
- 그 동안 자금 부족과 외국기업의 이탈로 전반적으로 시설이 매우 낙후되었고 능력 확대가 필요한 상황

· 미국 IHS Global Insight('15.3)에 따르면, 이란 건설시장 규모는 2013년 551억 달러에서 금년 681억 달러, 2020년 968억 달러로 확대 예상

· 경제제재가 해소되면 신규 발주 규모가 금년 300억 달러, 2016년 440억 달러가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옴(해외건설협회, 2015.4.1)

- 석유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만 3년간 1,000억 달러 이상, 낙후한 인프라 개선에 2,300억 달러 투자가 필요한 상태

· 이란 최대 항구인 반다르 압바스 항구의 수심이 얕아 대형선박의 경우 두바이항에서 환적해야 할 정도

· IHS는 2020년 분야별 시장비중을 주택 15%, 인프라 53%(수송 13%, 에너지 38%), 구조물(structures) 32%로 전망

<이란의 건설시장 규모 전망> (단위: 억\$)

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8년	2020년
건설시장 규모	551	646	681	679	819	968

자료: IHS(2015.3.31)

- 그러나 이란시장은 GCC 국가와는 달리 폐쇄적인데다 로컬 건설사의 역량 수준이 높아 일반 건설분야의 수주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
 - 정부 발주 사업의 경우, 수의계약 등을 통해 혁명수비대 산하 건설 자회사 등에서 독점하는 경향
 - 2010년 이후 석유가스 생산시설 공사는 대부분 이란 업체들이 수주
 - 또한 이란 기업들이 10여 년간 고립되면서 자체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데, 발전소의 경우 기술자립도가 90% 이상인 것으로 알려짐
- 따라서 국내기업은 고급 공종의 엔지니어링(E)과 구매(P)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살리고, 파이낸싱과 패키지로 수주해야 경쟁력 제고가 가능
 - 선진기술 도입 지연으로 자급화율은 높지만 기술수준은 낮은 편이며, 재정여력이 부족해 2006년 인프라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법규 도입
 -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에너지와 플랜트 부문은 최후에 규제가 풀리는 분야인데다, 외국인투자법 개정과 발주 준비가 필요하여 1~2년 본격 발주시기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확보방안 강구 필요

□ 공략포인트② : 제조업에서는 품질보다 ‘가격’에 맞춰야

- 경제제재 해제 이후 소비심리 개선 영향으로 소비재와 자본재 등 제조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
 - 그러나 이란 소비자와 기업들은 가격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‘적정한 가격 제시’가 중요한 Selling Point

<2014년 對이란 품목별 수출 실적> (단위: 백만\$)

순위	품목명	금액	순위	품목명	금액
1	LCD TV(디지털)	306	6	세탁기	101
2	자동차부품	134	7	기타 석유화학제품	99
3	액정디바이스	184	8	냉장고(400리터 이상)	68
4	냉장고 부품	156	9	철 및 비합금강냉연강판	10
5	철 및 비합금강열연강판	115	10	시 분할식 전화기	55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- 한국기업들은 중국기업보다는 품질이나 서비스가 좋고, 선진국 기업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‘한국적 경쟁력’을 잘 살려 공략 필요
 - 이란 정부는 수입대체 통한 자급체제 구축과 외화확보를 위한 수출 확대 정책을 위해 육성 업종에 대한 수입관세가 매우 높음
 - 일례로 완성차의 경우 수입관세가 90% 수준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하는 최종제품 가격 수준을 가능하면 낮춰야 함

- 또한 이란기업들은 보호 장벽이 높은 내수시장에서 구식 모델이나 중저가 설비를 도입하여 상품을 조립 생산, 판매하고자 함
 - 국영 Saipa사는 1992년 기아자동차와 라이선스 계약, 2005년부터는 라이선스 매입 통해 프라이드 모델을 생산 판매하여 큰 성공을 거둠
- 이란 정부가 장기 개발계획을 통해 집중 육성하는 주요 산업에서 부품·반제품 수출, 합작투자 협력, 기술 라이선스 판매 등 모색 가능
 - 주요 제조업 육성 위해 높은 수준의 부품 현지화 비율도 요구

<주요 육성산업의 장기목표>

- 자동차산업 : 2025년까지 연 250만대 생산으로 세계 11위, 아시아 5위 목표
 - 2014년 생산실적은 108만대(세계 18위 수준)
- 철강산업 : 2025년 생산능력 5,500만톤 확보 목표(2014년 기준 세계 7위 수준)
 - 2014년 조강생산 실적은 1,640만톤(세계 14위)
- 석유화학산업 : 2015년까지 중동 1위 수출국 목표

□ 공략포인트③ : 국영기업 및 준국영 기업과 협력하라

- 1979년 이슬람 혁명 세력은 ‘경제적 자립’과 ‘독립’을 정책 목표로 하는 이슬람 경제체제를 건설하고자 함
 - 이에 철강, 구리, 알루미늄, 자동차, 선박, 비행기, 석유, 가스, 전력 산업 등을 국유화하고 주요 기간산업을 국가에서 운영하도록 명시
 - 이라크와의 8년 전쟁이 끝나고 국가주도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1989년 당선된 중도실용파 라프산자니 대통령이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
- 2006년 최고지도자 명령으로 신 민영화계획을 수립, 우량 기간산업을 포함한 총체적인 민영화를 단행
 - 그러나 인수할만한 민간기업이 없어 국영지주회사나 국민연금 등이 보유한 준국영기업이거나 민영화한 기업간에 상호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

<이란의 주요 국영기업 현황>

업종	국영기업
에너지	· NIOC(National Iranian Oil Co)
석유화학	· NPC(National Petrochemical Co)
자동차	· Iran Khodro, Saipa, Pars Khodro * 산업분야를 관장하는 국영지주회사(IDRO)가 통제(지분 40% 소유)
철강	· Mobarakeh Steel, Esfahan Steel, Khouzestan Steel 등 * 광업분야를 관장하는 국영지주회사(IMIDRO)가 통제
전력	· 이란전력공사(이란명 Tavanir), 이란발전프로젝트위탁회사(Mapna)

- 한편, 이슬람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1979년 창설된 혁명수비대(IRGC)는 1990년대 초부터 경제활동을 개시하여 거대한 재벌로 부상
 - 정부발주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영기업 민영화 참여로 규모가 점차 커져 이란 경제의 약 1/10~1/3을 장악한 것으로 추정(연매출 약 120억\$ 이상)
 - 운송, 건설, 무역, 에너지, 통신, 광산, 자동차, 전자, 금융 분야에서 사업 영위
 - 특히 엔지니어링 자회사인 Khatam al-Anbia는 이란 최대 건설업체 중 하나로(종업원 약 25,000명), 엔지니어링, 에너지, 광산, 방위산업에서 활동
- 따라서 사업 안정성과 파이낸싱 역량이 양호한 국영기업, 준국영기업, 혁명수비대 산하 유력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
 - 그러나 개혁개방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혼란이 가중돼 정치 및 비즈니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유의 필요
 - 인맥을 통한 사업기회 발굴보다는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양호한 이란 파트너와 함께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

□ 공략포인트④ : 비즈니스 리스크를 경계하라

- 경쟁 리스크: Next China 시장을 모색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이란 시장에 대거 진출할 것으로 보여 바로 ‘Red Ocean’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음
 - 이란은 전통적으로 독일, 프랑스, 영국 등 유럽기업의 안방시장이었으나, 경제제재 강화로 2010년경부터 한국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렸던 것
 - 따라서 앞으로는 핵협상 타결의 공신국가인 미국, 영국, 프랑스, 독일 기업들이 선진기술과 브랜드 역량을 앞세워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
 - 특히 이탈리아, 스페인 등 유럽 건설사들은 유로화 약세로 수주경쟁력이 높아진 데다 이란의 건설표준이 유럽 방식으로 유리(한국기업은 상대적으로 고전)
 - 여기에 가격 경쟁력, 헝그리 정신과 함께 파이낸싱 능력을 겸비한 중국업체들은 경제제재 기간 동안 이란 시장에서 사업경험을 쌓은 바 있음
- 정책·제도 리스크: 외국인투자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데다 정책·제도가 지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‘First Mover’s Disadvantage’ 우려
 - 외국인투자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지만, 헌법에 외국자본의 착취에 의한 종속적 자본주의 거부를 명시할 정도로 反외국기업 정서가 존재
 - 특히 성직자 집단과 함께 이슬람혁명의 주역인 전통적인 대상인계층(상인 엘리트)은 기득권 상실 우려로 산업화 추진과 외국인 자본 유입에 반감
 - 핵협상 잠정타결 이후 에너지부문의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‘Buyback 계약’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,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
 - Buyback 제도 : 유전개발에 성공, 석유생산을 개시하면 소유권을 이란정부에 넘기고 약정된 수익률을 받는 방식(메이저의 대규모 자본투자 기피 사유)

- 따라서 개혁 법규와 제도가 도입돼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수주 시 폐해 발생 가능성 유념 필요
- 이외 자금부족에 따른 사업 지연·취소, 과실 송금난, 계약서명 후 이사회 승인(승인율 30~40%), 느린 업무 추진방식 등의 사업관행도 인지 필요
- **정치 리스크: 고령(76세)에 전립선 수술을 받은 바 있는 최고지도자 유고시 정치 세력간에 권력 다툼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음**
 - 작년 사망설이 나돌자 이란 정부는 전립선 수술 사실과 ‘건재함’을 공개
 - 유고시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전문가 의회(이슬람 법학자로 구성)에서 최고 지도자 선출. 현재 의장은 강경보수파
 - 이란에서는 정당이 인정되지 않아 인물 중심으로 ‘정파’를 형성
 - 온건보수파(하메네이 최고지도자), 중도실용파(라프산자니 전대통령), 개혁파(하타미 전대통령), 강경보수파(아흐마디네자드 전대통령) 등 4개 정파 유력
 -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금년 1월 개혁파들이 6년 만에 공개 모임을 가진 바 있어 이번 핵협상 타결을 등에 업고 세력 확대가 예상

□ 공략포인트⑤ : 정치·문화적으로 Care 하라

- **이슬람 혁명 성공: 정치와 종교 세력간 도전과 균형을 모색해온 오랜 역사적 전통 속에서 탄생한 독특한 정치체제 이해 필요**
 - 1961년 팔레비 2세가 농지개혁(종교재단의 토지 몰수), 문맹퇴치, 여성 참정권 부여 등 강력한 개혁 정책(일명 ‘백색혁명’)을 단행하자 최고 이슬람 법학자였던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혁명을 일으켜 성공(1979년)
 - 최고지도자는 종교 이외 행정, 사법, 군사, 외교 분야에서도 막대한 영향력 행사
 - 행정(대통령 임명권, 정책결정), 사법(수장 임명권), 군사(군통수권, 수장 임명권), 예배인도, 혁명 및 종교기관, 외교 등 크게 5개 분야에서 영향력 막강
 - 최고지도자 영향력 아래 삼권이 분립되고 직접선거 통해 대통령(임기 4년, 1회 연임 가능), 국회의원, 전문가의회 대표를 선출하여 민의 반영
 - 왕정 폐지와 이슬람공화국 헌법제정도 국민투표 통해 결정(지지율 98%)

<이란의 정치체제 특성>

이슬람 체제 성격	공화국 체제 성격
최고 종교지도자(이슬람 법학자)	대통령
헌법수호위원회(12명 위원)	국회
전문가의의회(86명 전문가)	(2012년 9대 국회, 의석수 290석)
이슬람·종교인 법정	민사, 형사 법정
혁명수비대, 민병대(Basij)	정규군

자료: 이권형 외(2012)

- 이란은 아랍국가와 다름: 서기 651년 아랍의 침공으로 이슬람을 수용했지만, 페르시아 민족 정체성이 강하고 문화 자긍심도 높음
 - 이슬람 종파도 사우디 등 GCC 국가들이 ‘수니(Sunni)’를 국교로 삼는 반면, 이란은 ‘시아(Shia)’가 국교
 - 시아파는 ‘알리를 따르는 사람들(Shiat Ali)’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, 예언자 무함마드 사후 12명의 이맘 통치를 믿음(알리는 초대 이맘)
 - 이란인은 BC 550년 건설된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크며, 현재도 국민들이 고대 시문학을 사랑
 - 페르시아 민족비중은 61%, 페르시아어 사용비중은 53%(다민족 다언어 국가)
 - 민족·언어적으로 인도-아리안(Indo-Aryan or Indo-Iranian)계로 셈족인 아랍 국가와 차이(산스크리트, 힌디, 우르드, 벵갈리 등이 인도-아리안 언어)
 - 독자적인 이란력(금년은 1394년, 3.21~익년 3.20 기준)을 사용하며,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 번호판에서도 페르시아 숫자로 표기

4. 기업에 주는 시사점

□ 과거 수 차례 유망 신흥시장이 개방될 때마다 반복되었던 ‘묻지마식’ 진출을 지양하고, 기회와 함께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

- 이란은 독특한 정치체제와 ‘자주·자립·자급’을 근간으로 하는 정책, 전반적으로 발달된 산업과 기업들의 수준, 경쟁구도 면에서 베트남, 미얀마 시장 등과는 상이
- 우리 기업들은 자신의 역량과 국제경쟁력 수준을 엄격히 진단하고 리스크도 철저히 분석한 후 보수적으로 판단 필요
 - 정치사회 불안정성이 높고 제도가 미성숙한 신흥시장에서는 ‘선점’ 위한 First Mover보다 Fast Follower 또는 Late Mover가 더 유리할 수 있음

□ 다행히 이란은 국민성이 우리와 정서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고,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‘케미(궁합)’가 맞아 신뢰관계를 잘 쌓아 온 점을 활용할 필요

- 이란인들은 가족관계를 중시하며 어른에 대한 공경사상이 깊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좋아함

- 대장금을 비롯해 상도, 해신, 주몽 등 한국 사극 시청률이 매우 높음(대장금의 경우 평균시청률 57%, 최고시청률 90% 육박)
- 한국 코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태권도와 양궁이 메달 효자 종목이 됨
- 이란 기업들은 아랍 국가에 비해 사업에서 ‘신의’를 중시하고, 외국 기업에 대해 배려를 해주는 ‘우수’ 사업 파트너
 - 한국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, 자동차, 휴대폰, 가전 제품에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
 - 또한 이라크와 전쟁 기간에 철수하지 않고 공사를 지속해준 대림산업을 ‘국민기업화’할 정도로 ‘정서적’인 끈끈함이 강함
- 정부도 우리기업의 이란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강구 필요
 - 우리 기업들이 받지 못한 미수금 또는 미수채권을 원활히 상환 받을 수 있도록 방안 강구(한국정부 차원의 금융제재 우선적 해제 등)
 - 달러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는 원화결제시스템의 지속 활용방안 검토(최소한 원화 예치액 소진 시까지)
 - 파이낸싱 지원이 필요한 이란사업 위해 對이란 정책금융(ODA, EDCF 등) 재개 및 활성화 필요
- 향후 이란은 국제정세적으로나 국제유가, 자본 흐름에서 ‘Game Changer’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주시가 필요
- 중동의 안정과 질서를 책임지는 ‘경찰국가’ 지위가 기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이란으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음
 - 사우디는 같은 수니파에서 알카에다, IS 등 극단주의 세력 차단에 실패한데다 중동지역에서 요구가 증대되는 개혁과 민주주의 선도 역할을 감당하기에도 역부족
 - 이란 민병대가 이라크의 IS 퇴치 지원에 나선 반면, 최근 사우디 중심의 아랍연합군이 예멘 반군 퇴출에 나서는 등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는 양상
- 이란은 세계 에너지 자원의 보고 지역인 걸프만과 카스피해를 모두 접경하는 유일한 국가로서 지정학적인 가치가 높음
 - 또한 육상으로 7개 국가와 접경하고 있으며, GCC(걸프협력회의)를 포함하는 MENA(중동·북아프리카) 시장은 물론 동유럽과 중앙아시아, 서남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중심에 위치하여 시장 확장성도 양호

<이란의 지정학적 위치>



자료: 저자 작성

* 지도 : TheMorningFlight.com

[참고자료]

[단행본]

유달승, 「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호메이니」, 2009

윤서영, 박철형, 강성수, 「이란의 주요산업 - 자동차, 전력, 석유화학」,
대외경제정책연구원, 2010

유흥태, 「이란의 역사 : 이슬람의 유입에서 이슬람 혁명까지」, 2008

이권형, 박재은, 박현도, 「이란의 정치·권력구조와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」,
대외경제정책연구원, 2012

최필수, 임민경, 박재은, 「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 이후 중·이란 관계 동향 및
시사점」,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2013

[보고서]

IMF, "Regional Economic Outlook – Middle East and Central Asia" 2014.10

[홈페이지]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www.kotra.or.kr)

더모닝플라이트(<http://themorningflight.com>)

한국무역협회(www.kita.net)

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(www.icak.or.kr)

IHS(www.ihs.com)

[언론]

아시아투데이, 이란 핵협상 타결되면 유가는 어떻게 되나... 장단기 전망, 2015.3.31

연합뉴스, "이란 핵협상 12년만에 극적 타결...핵개발 중단·제재 해제", 2015.4.3

파이낸셜뉴스, "이란, '인구-자원-산업' 3박자 갖춘 기회의 땅", 2015.4.3

한국일보, "이란 핵협상 타결-미국과 이란이 쟁긴 명분과 실리는?", 2015.4.3

EBN, 현대·GS건설·대림 등 주요 건설사들, 이란 제재 해제시 '수혜', 2015.4.1